

“아픔의 도시 광주에서 희망 봤어요”

“감독님께 처음부터 아픔이 있는 도시 ‘광주’에서 촬영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완성된 영화를 보니 상처를 간직한 서사가 ACC광장을 배경으로 스크린에 담긴 모습이 많이 새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잔잔한 희망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독립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의 주연 배우로 출연한 박하선은 그렇게 잔잔한 희망을 얘기했다. 그녀는 지난 4일 광주극장 열 ‘영화가 흐르는 골목’에서 진행된 인터뷰와 시사회에서 박하선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영화를 연출한 김희정 감독(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도 함께했다.

작품은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다 남편을 잃은 ‘명지(박하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남편을 잃고 명지는 바르사바로 떠났다가 얼마 후 광주로 오게 된다. 집을 구하고 일을 하면서 남편의 흔적을 드문드문 마주하던 명지는 슬픔을 조금씩 극복해나간다.

김 감독은 “영화는 가족을 잃은 상실의 고통을 이겨 나가는 여성과 아이들을 다룬 영화”라며 “동시에 아픔을 겪은 이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 출연한 박하선은 카멜레온 같은 배우다. 지금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배경에 도전해 왔다. 대표작 ‘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에서 명랑한 국어교사로, 사극 ‘동이’에서는 중후한 인연왕후로, 영화 ‘청년경찰’에서는 카리스마 여경으로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그려왔다.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해 박하선은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이 배경을 놓치면 훗날 영화가 개봉했을 때 후회할 것 같은 작품 위주로 선택했다”며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나니 공감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알려진 대로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독립영화다. 장르 특성상 배우와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을 것 같다. 박하선은 독립영화의 매력에 대해 “요즘엔 경계가 모호해진 것 같다”면서도 “감독님이 좋아서 또는 독립영화가 좋아 넘어오는 케이스가 많다보니 촬영장은 늘 열정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작품의 예고편에 나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 등 ‘영화 속 광주’도 눈길을 끈다. 작중 명지의 일터와 집이 위치하는 광주는 이번 작품의 핵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광주라는 도시와 개인의 아픔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아 관객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일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상실의 경험이 있는데 예도하며 톡톡 털어내는데 3년



시사회에 참석한 김희정 감독(사진 왼쪽)과 박하선 배우.

독립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광주극장서 시사회

김희정 감독·배우 박하선 참석...독립영화관·CGV 등 상영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이번 작품에 녹여내 관객들과 공감하고 싶었죠.”

사실 어른이 되고 나면 누구나 마음껏 울기가 쉽지 않다. 박하선 또한 어른이 되고 나서는 거의 울 수가 없었다. 어른이라는 무게가 주는 압박감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을 촬영하며 많이 울었더니 치유와 힐링의 느낌을 받았다”는 말에서 영화가 주는 카타르시스의 힘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이번 영화는 여성서사가 주가 된다는 점, 해외도 하나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이채롭다.

이에 대해 김희정 감독은 “여성이나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인공들을 그리는 작업이 흥미롭다. 난민이나 디아스포라가 화두인 시기가 국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부유하는 불안 속에서도 나름의 만족감을 갖는 복잡한 존재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나도 이전에 폴란드에서 7년, 프랑스 노르망디나 파리에서 반년씩 살았던 경험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경계에 있는 대상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에 기자는 작품 ‘제목’을 차용해 ‘어디로 가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하선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 언젠가 쿠바에 가고 싶다. 살사도 배우고 싶고 노인과의 촬영지도 기보고 싶다”면서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20대 초반에 연극을 했던 기억이 좋아 앞으로도 연극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라닝타임 104분.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메가박스, CGV 등 전국 상영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상원 작 'The Panoramic'

‘아트 바캉스’ 떠나요!

정승원·하루.K 등 참여...7일~8월15일 신세계갤러리

김경민 작가의 ‘surfer’ 작품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바다에 달려가고 싶어진다. 파란 수평선을 바라보며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핑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보는 이의 마음마저 덩달아 시원해진다.

후텁지근한 장마철과 휴가철이 겹친 요즘,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온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아트 바캉스를 즐기는 건 어떨까?

신세계갤러리(광주신세계백화점 1층)는 휴가철을 맞아 ‘아트바캉스: 여행의 떠나요!’를 개최한다.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여름 휴가의 추억을 갤러리로 초대했다.

김경민, 노동식, 이상원, 이조흠, 전영근, 정승원, 하루.K 등 모두 7명의 화화와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인다.

아트바캉스의 출발은 전영근 작가와 함께다. 자동차 트렁크를 가득 채우고도 지붕 위에 잔뜩 실은 용품들은 여행에 대한 설렘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캠핑카를 끌고 가까운 바다로 내달리고 싶은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이상원 작가의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한 가슴을 뚫어준다. 질푸른 수평선과 노란 모래밭 맑은 하늘 위에

둥둥 떠있는 몽게구름은 현실적이면서도 동화적이다.

‘수박을 들고 산으로 가다’라는 노동식 작가의 작품은 바다가 아닌 산으로의 바캉스를 상징하고 있는데, 한 입 베어 문 모양의 수박 형상은 입맛을 돋우는데 그치지 않고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한다.

정승원 작가의 ‘아쿠아리움’이 선사하는 환상적이면서도 기발한 발상은 저만치 더위를 밀어내며, 이조흠 작가의 ‘INFJ 커플의 여행’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트렌디한 감각을 선사한다.

여행은 뭉뚱하니 해도 먹는 재미가 제일. 하루.K의 ‘휴식이 된 디저트’는 커다란 그릇에 산과 바다와 나무를 데코레이션 삼아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배치한 점이 이색적이다. 그릇에 넘치도록 담긴 푸른 산과 계곡, 넘실대는 바다는 아트바캉스라는 주제를 ‘맛있게’ 구현한다.

한편 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무더운 고습한 날들이지만 갤러리에서 아트 바캉스를 즐겨보자는 취지에서 전시를 기획했다”며 “개성적이고 독특한 작품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의미있는 바캉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사진설명

11~13일 평산하림 예술제

음악·무용 연기·미술 등 다채

1989년 개교한 전남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승)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비 예술인들을 키워왔다.

전남예술고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만날 수 있는 제32회 평산하림 예술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남예술고 예술관 등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음악, 무용 연기, 미술 전공 학생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돼 있다.

11일 오후 4시 음악관에서 열리는 음악발표회는 전남예술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문을 연다. 유건우 교사가 지휘봉을 잡은 이날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1악장을 들려주며 유하영·임재현 양이 ‘피카로의 결혼’ 중 ‘편지 이송장’을 협연한다.

또 브람스의 ‘소나타 3번’을 연주하는 김민준 군을 비롯해 김현진·와베미나·이주희·은예람·주시원 등 재

학생들의 솔로·듀엣 무대도 마련됐다.

피날레 연주는 전남예술고합창단(지휘 주경휘)이 들려주는 ‘바람의 노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등이다.

무용·국악 발표회는 12일 예술관에서 열린다. 한국 무용 ‘부채산수’, ‘타와 무의 어울림’, 현대무용 ‘소리 없는 아우성’, 판소리 입체창 ‘수궁가’ 중 ‘좌우나졸’ 등이 주 레퍼토리다.

연기전공 학생들은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를 무대에 올리며 예술영재기움 국악 참가자들의 25현 가야금 2중주도 만날 수 있다.

13일 예술관에서 열리는 모델 실용음악 발표회에서 모델 전공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에 맞춰 모델 런어웨이를 선보이며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은 ‘Stand Up For You’, ‘Hip hop My Everything’ 등을 들려준다.

하림관에서 3일 동안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는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만화 전공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희곡집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ACC 재단 발간...동아연극상

‘그’는 산티아고 순례길과 반대 방향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순례자다. 두 명의 기상청 연구원은 온라인 여행을 하며 위성과 모니터로 이야기를 나눈다.

희곡집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은 코로나 시대와 이후를 살아가는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서사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제59회 동아연극상에서 희곡상을 수상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연극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을 발간했다. ACC 창·제작 연극 희곡집으로 정진세가 쓰고 연출했으며 ACC 문화상품점과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2021년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젊은연극상을 수상하기도 한 정진세 작가는 동시에 이슈와 사회상을 특유의 유머가 담긴 언어로 그려내는 작가이자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다.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희곡집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며 겪는 우울감을 표현한 작품”이라며 “의미있는 작품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은 매년 참신한 기획 도서를 출간을 매개로 ACC의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깊은슬픔’



‘삶 그리고 바다’

류임석 조각전, 30일까지 도화헌미술관

도화헌미술관은 고희반도 끝자락 시골 학교를 리모델링해 전시실로 새롭게 탄생한 갤러리다. 자연의 색을 만날 수 있는 천연염색 체험장이 있고 음악이 흐른다. 사시사철 푸른 바다가 곁에 있고 천혜의 자연이 주는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고흥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고 바닷가 인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류임석 작가. 그에게 바다는 낭만의 감성으로 로망 불 수 없는 필진한 삶의 현장이다.

류임석 작가의 조각전 ‘삶 그리고 바다’전이 도화헌미술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23 도화헌 레지던시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다.

모두 30여 점의 작품은 물고기 종류가 천차만별이듯 다양한 물고기를 조형했다. ‘군중-하나가 되다’는 인간 개개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수심, 수백 종의 물고기의 생을 구현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

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어떤 물고기들은 반대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생명의 본질적인 특징 나아가 무리 속의 변화와 다양성을 표현한 것 같다.

작가는 빈티지함과 바다 특유의 차가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동과 스테인레스 재료와 오브제를 활용해 접목했다. 동을 부식시켜 작품에 깊이를 더했으며 용접작업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느러미에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물고기를 형상화한 ‘깊은 슬픔’은 여러 감정을 환기한다. 지느러미에 돋은 잎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 외에도 다른 물고기와 다른 모습에 대한 슬픈 인식으로도 읽힌다.

한편 류 작가는 “물고기의 생처럼 우리 또한 삶이라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물고기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영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